**09/26/2017 Ik – 분절음운론**

1. 자음 : 30개 음소 (EN Turkana 17, EC Dhaasanac 25, SO Dime 33) – 내파음 존재

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조음방식 \ 조음위치 | 순음 | 치경음 | 설측음 | 경구개음 | 연구개음 | 성문음 |
| 비음 | m | n |  | ɲ | ŋ |  |
| 폐장기류 파열음\*\* | p b | t d |  |  | k g |  |
| 성문기류 파열/파찰음\*\* | ɓ | ʦʼ ɗ | (tlʼ) | ʝ[ʄ] | ƙ[kʼ/ɠ] |  |
| 폐장기류 파찰음 |  | ʦ ʣ |  | c[ʧ] j[ʤ] |  |  |
| 마찰음 | f | s z | (ɬ ɮ) | ʃ ʒ |  | h ɦy[ɦʲ] |
| 접근음 | w | r | l | y[j] |  |  |

\* (괄호) 안은 현재 사라진 음소 \*\* 이후 편의상 (유/무성)파열음/내파음/방출음으로 구분

1.1. 음성 실현

1.1.1. 폐장기류 파열음 : (후행하는 무성모음이 완전 탈락한 경우) 휴지 앞에서 불파, 유성음은 휴지나 무성모음 앞에서 약간 무성음화, 치경음은 치음에 가까운 설단음, 유성음은 후두 상부의 압력이 크고 개방이 약간 지연되는 “경음” (<방출음의 흔적?)

1.1.2. 성문기류 파열/파찰음 : 내파음은 유성파열음과 같이 불파 및 무성음화, 치경내파음은 후치경 설첨음 (때로 권설음), 경구개내파음은 설단음, 방출 파찰음은 SC와 연관, \*tlʼ > ʝ, 연구개 방출음은 젊은 층에서 내파음 실현이 선호되며 /ɗ, ʝ, ƙ/는 성문폐쇄음으로 나타나기도 함

1.1.3. 마찰음 및 폐장기류 파찰음 : 경구개음은 후치경 설단음, \*ɬ > ʃ , \*ɮ > ɦy | #\_\_ ; > ʒ elsewhere, /z/와 /ʣ/는 무성모음 앞에서 약간 무성음화 (/j/는 어두/어말에만 나타남), TT의 영향을 받은 젊은 화자들에서는 [ʃ~ʧ~ʤ]와 [z~s]이 자유변이형, 음소성이 애매한 /ɦy/는 [ɦ]로 실현되지 않으나 일부 (특히 젊은) 화자들은 유성성 또는 마찰성을 잃은 [hj~j]의 자유변이형을 보임

1.1.4. 공명음 : /r/은 탄음이지만 특히 어중/어말에서 전동음 실현 가능 (강조 효과?), 무성모음 앞에서는 무성 전동음화 및 종종 장음화, 설측음은 휴지나 무성모음 앞에서 약간 무성음화 및 간

혹 불파, 전이음은 같은 환경에서 약간 무성음화되며 음절화에 따라 모음으로 분석될 수도 있음

1.1.5. 기타 실현 : /ɗ/를 제외한 설정음은 설단음, 연구개음은 후행 모음에 따라 약간씩 전/후설화

1.2. 분포 : [+nasal]→[+PoA] | \_\_C[+PoA] (어중 모음탈락의 경우는 예외), /h/와 /ɦy/는 어두에만 옴, /j/는 어두나 어중에만 옴, 한 어근 내에서 조음위치가 같은 파열음과 내파음이 올 수 없음 (예외: doɗᵃ ‘질’, dʊɗɛ́r ‘수생 딱정벌레’, ɲoɗódᵃ ‘땅돼지’)

2. 모음 : 9개 음소 – [±ATR] 4쌍 + /a/ (Turkana, Surm. Didinga와 유사, Dhaasanac, Dime는 없음)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(+ATR | -ATR) | 전설 (비원순) | 중설 (비원순) | 후설 (원순) |
| 고모음 | i ɪ |  | u ʊ |
| 중모음 | e ɛ |  | o ɔ |
| 저모음 |  | a\*\* |  |

\* 장모음은 [+length]가 아니라 VV로 분석 \*\* [-ATR]

2.1. 음성 실현 : 휴지 앞을 제외하면 항상 유성 (휴지 앞이나 절 말에서 무성음화), 후설 모음과 전설 고모음은 다른 모음 앞에서 각각 [w]와 [j]로 반모음화 가능

2.1.1. 무성모음 : 1)유성모음의 무성 변이음 2)무성모음의 표면형 3)후음 자질의 자립 분절적 작용; 윗첨자로 표기함

2.1.2. 분포 : 어두/어중/어말 모두 올 수 있음, 이중모음 또는 반모음-모음 연쇄로 분석할 수 있는 소리들은 어근 첫머리(대부분 어두)에서만 나타남

2.1.3. 실현 : /a/는 경구개음/치경음/고모음 앞에서 [æ]로 약간 고모음화, 성문기류 자음에 인접하면 삐걱거리는 소리로 실현 가능

3. 음절 : 삽입, 탈락, 동음생략, 음위전환 분석에 유용, 무성모음 탓에 음성학/음운론적 층위 구분

3.1. 음운론적 음절 : (C(G))V 구조 (V는 단모음/이중모음/성절비음, 성절비음은 비비자음 앞에서만)

3.2. 음성학적 음절 : (C)V(V)(C) 구조 (무성모음이 탈락하면 어말에서 폐음절 허용)

3.3. 음절화 : 앞에서부터 진행, 초성 최대화, 특정 형태소 연쇄의 경우 허용되는 구조로 재음절화

3.3.1. 어중 모음 삽입 : CVC 어근이 완전중복되면 자음 사이에 /ɪ/나 /i/ 삽입 (/ʊ/와 /u/로 후설화)

3.3.2. 어중 모음 탈락 : 1)어중음절 초성인 비음-비비자음 사이 (비음은 선행음절 핵의 일부가 됨) 2)형태소 연접으로 인한 VVV 연쇄 (앞 두 모음 중 하나가 탈락)

3.3.3. 동음생략 : (거의) 동일한 자음이 인접한 형태소에 있으면 첫 자음 탈락 후 재음절화

3.3.4. 비성절화 및 대상연장 : 자음 앞 모음 뒤에서 후설모음이나 전설 고모음이 각각 /w/와 /y/로 비성절화 후 해당 모음의 모라가 접미사의 모음으로 전이 (장음화)

3.3.5. 음위전환 : 연속한 음절의 초성이 서로 자리를 바꾸면 원래 초성의 유성성을 유지하기도 함

4. 형태음운론 : 특정 형태소 경계에서만 일어나는 형태음운론적 현상들이 존재

4.1. 동음생략(M1) : 1)어근말 /k/나 /ƙ/는 이거/완료상 접미사나 다수형III 접미사 앞에서 2)형태소말 /n/은 /n/이 들어간 형태소 앞에서 3)도래/기동상 접미사나 이거/완료상 접미사의 /t/는 2인칭 포함 주어 표지 접미사의 /t/ 앞에서 탈락 가능

4.2. 비파찰음화(M2) : /cV-/ 연쇄로 끝나는 명사어근의 /c/는 어근말 모음이 주격이나 구격 접미사로 인해 삭제되면 [k]로 경화

4.3. 비말음 탈락(M3) : /…CV/로 끝나는 많은 문법형태소의 C는 구 중간의 위치에서 탈락

4.4. 모음동화(M4) : 특정 형태소 경계에 걸친 특정 모음 조합은 서로 동화되는 경향이 있음 – 완전역행동화 / (비인접)부분역행동화 / 완전순행동화(3가지 경우) / 부분순행동화 (78p Table 86.)